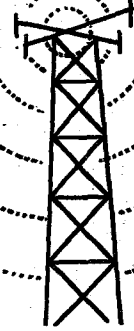


12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대한양계협회 편집국장)

MD 時代는 去하고
IB 時代가 來하는가?

지난 11월 4일 안양가축위생연구소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본회 안양분회(회장: 박성범) 주최 추계 양계강습회는 근자에 보기도 드문 대성황리에 개최 되었었다.

이 강습회를 개최한 안양분회에 감사를 드리며 장소를 제공하여 주신 가축위생연구소와 이날 강의를 맡아주신 김선중박사, 이영옥박사, 김영환전무, 박근석과장님께도 양계인의 한사람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이날 100여 양계인의 수강 자세도 그어느때보다 진지하였던 것 같다.

이번 강습회가 이토록 성공을 거두고 11월 4일의 업제의 총 관심은 안양으로 집중되게 한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이날의 강의제목이 최근 우리 업제의 최대 관심사인 전염성 기관지염과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하여 이를 담당하는 가축위생연구소 제역과의 김선중, 이영옥 두박사가 직접 강의를 맡고, 향간에 그간 화제가 되었던 IB바이러스의 국내에서 분리에 관한 정보를 이날 발표할 것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국양계”에 보면 양계업의 발전 과정을 수난기(1945~1952 농가양계) 부흥기(1953~1960 부업양계) 기반조성기(1961~1965 부업및 겸업양계) 성장기(1966~1970 겸업및 전업양계) 생산조절기(1971~1974 전업및 기업양계) 안정기(1975~현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종계로 분류하여 레그혼 뉴햄프셔시기와 외국계시대 1973년 이후의 국산계 및 P.L시대 그리고 78년 이후의 재도입시기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양계발전사를 닭질병에 따라 분류하여 보는것도 흥미있는 일이다 아닐 수 없다.

1938년 부터 전국적으로 피해를 주던 뉴캐슬은 해방후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뉴캐슬시대로 군림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1950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백신제조에 본격 착수한 이후 1958년부터 B₁ 백신이 나오는등 뉴캐슬 퇴치에 전력을 다했으나 매 2년 주기로 그 위세는 수그러들지 않으며 현재는 계절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천후로 아직도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다음 찾아온것이 마래병(백혈병포함)시대로 볼 수 있겠다.

196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산란계에 막심한 피해를 주었던 마래병(MD)은 당시 예방방법은 오직 육추기간 완전 격리사육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 대부분의 대군채란양계업자가 양계를 계속하

여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검토하던 시기였었다. 많은 채란양계의 경우가 입추수수에 비하여 70%정도가 도태폐사 되는 것이 예사였고 심한 경우 150일까지 50% 이상이 폐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병원체는 1971년에야 분리되므로서 당시 70년도에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의 수입여부가 논란이 된적도 있으나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에서 백신수입에 대한 기술 검토 과정에서 당시 양계농가의 피해가 너무도 컸으며, 당시의 기술과 장비로는 국내에서 백신개발이 어렵다고 판정되어 71년부터 백신이 수입되게 되므로서 MD 시대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때 계너적수염도 일부 종계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려져 백신수입을 놓고 병원바이러스 분리가 되지 않아 약간의 불안이 있었으나 당국의 신속한 조치도 별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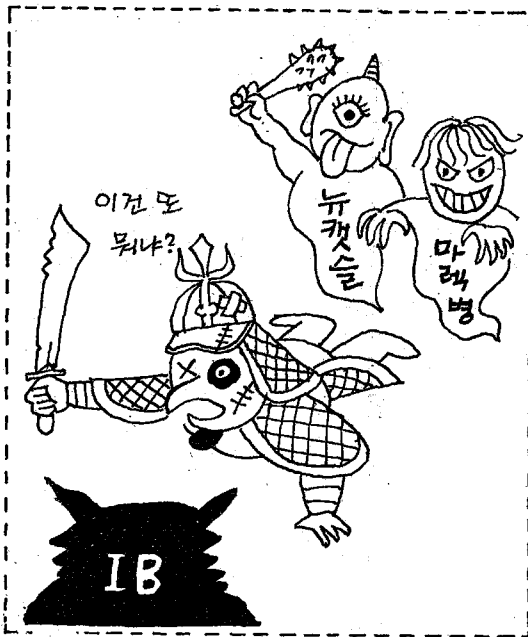
1978년 11월 4 일.

이날은 양계사에 IB시대의 막을 여는 날로 양계사에 기록되어 질것인가?

이제 MD시대는 물러가고 추백리와 뉴캐슬시대가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던 많은 양계업자에 78년 초부터 조용히 찾아온 우리에게 잘알려지지 않은 질병이 있어 양계산업 전체를 위협하게 되었고, 본자에서도 5월호에 이를 특점으로 독자에게 알린바 있다.

소위 산란저하 증후군(Egg drop syndrome)이나 IB나 감보로니 우리에게 낯설은 병명이 점점 귀에 익게 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도 점점 커갔다.

산란 양계장의 피해에 대하여는 본지 5월호에 자세히 기술되었으며, 산란계가 아닌 종계의 경우 그 피해는 비참할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IB에 대한 혈청학적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서도 그간 바이러



스를 분리 동정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하던 여러 문제가 이날 강습회에서 속시원히 해결되었다. 여기에서 우리 양계인이 크게 작성하여야 할 문제는 양계장이나 특히 증계장에 질병이 들어 왔을때 이를 숨기려고 하는 좋지 못한 습관이다.

부로일러의 경우는 한때 생계상인이 구입하여 전국에 오염시키므로서 크게 문제가 되어 법정에 까지 비화된 적도 있었다. 물론 피해를 당하는 농장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전염병으로 판정이 될경우 보상도 없이 닭을 소각처분해야되고 상당기간 그곳에서 양계를 할수 없게 되므로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숨기려 하는 심정에 동정은 가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여 줄것으로 생각되며, 이제는 양계규모가 대형화 됨에 따라 공동 집단으로 방역을 하지 않고는 양계산업이 뿌리를 내릴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되겠다.

그간 본지를 통해 수차 새로운 증상의 질병이 발생하였을때 즉시 가축위생연구소에 연락할 것을 권장 하였음에도 잘되지 않음을 우리 전체 양계인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질병이 발병하였을때 전문기관의 진단 없이 일반부화장, 사료공장, 제약회사 세일즈맨의 진단도 때로는 큰 피해를 주고 새로운 질병의 조기 진단을 방해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최근 연구소에 오는 가검물중 IB 또는 아테노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거의 없는것도 우리가 흔히 무슨 병이라고 추측 진단 하는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루빨리 질병으로 부터 양계업자가 해방되어 생산성을 높일수 있기를 바라며 이

를 위해서는 더 많은 양계업자가 연구소 제역과를 이용하여야 되겠다.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될 듯

축산업처럼 위험부담이 크고 계절별로 년도별로 가격 진폭이 크고 생산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안한 사업도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 축산의 성패를 운명에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이유로 축산은 발전하지 못하였고 낙후된 축산업은 조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각하의 특별배려로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가 69년부터 74년까지는 전액, 그후 3년은 세액의 1/2이 감면되었었다. 소득세 전액 감면이 종료되는 74년 정기국회에서 당시 양계협회장인 김재춘의원을 비롯한, 전축산인은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의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줄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만일 축산업에 조세감면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경우 3년 이내에 막대한 축산물을 외국으로 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한 바 있다.

과연 3년이 지난 현재, 7만톤에 육박하는 쇠고기와 많은량의 돼지고기, 양고기 쇠꼬리 등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쇠

고기의 수출국은 몇개 안되고 개발도상국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육류수요는 계속 급증하며 쇠고기 수출국의 육류 증산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육류 자원난 시대도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에서는 쇠고기의 자급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급을 하고자 하는 기본목적도 외화절약이 아닌 쇠고기 대량 수입으로 인한 국제여론이 나빠지는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늦은 감은 있으나 장덕진 장관께서는 소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하고 상속세까지도 감면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축산자금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월간양계 8월호 참조)

지난 제100회 정기국회에서도 장덕진 장관께서 소득세감면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혔다. 전 축산인은 이번 농수산위원회 김원태 의원의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크게 환영하며 우리나라가 축산발전의 큰 자극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질의와 답변의 전문을 소개한다.

질의내용

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을시다. 과거부터 조세감면의 기한연장에 대해서는 김재춘위원께서도 많이 주창했고 이 사람도 같이 주창한 사람의 한사람이 을시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정부가 대대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서 농수산물의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인당 1,000불, 소득의 국민으로서 육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정부는 국내생산의 절대량이 부족 하다고 하여 외국산육류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축산장려가 무엇보다도 초미의 급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물에 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한은 현재 기업을 시작해서 3년동안 면세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제에 10년으로 연장해서 생산자의 육을 고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저화들이 조세감면을 주장할적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축산물이 오히려 감산이 되겠다. 그래서 급기야는 축산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될때가 올것이다. 그러니 미리 미리 이런 혜택을 주어 가지고서 축산을 장려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창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창한 그대로 현재 축산물을 도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재무부하고 충분히 절충해서 법개정을 서둘러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이 됩니다.

장장관 답변

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을 개정해서 현재 사업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100%감면 그리고 그 후 2년간 50%감면토록 한 것을 한 10년 정도로 늘리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틀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일응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재무부도 상당히 납득이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세법개정의 방향이 부가가치세를 보완하는 문제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부분 그러면서 증권거래세의 신설 등 오히려 대기업쪽에 너무 부의 편중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조금막는 그런쪽으로 세법개정을 하면 축산업자체하고 기업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마는 대부분 기업들이 이 축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이 개정안을 내면 이번 세법의 개정의 방향과 일부 다른 면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결론을 내리자 그러면서 분명히 재무부도 축산업에 대해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면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통령각하께서 제주도에서 연두순시를 가셨을때 제동목장에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고 축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자금 이런 면에서 좀더 과감한 지원을 해야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재무부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축산업에 대한 감면연장 문제는 내년도 정기국회때까지는 정부내에서 결론이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人獸共通 傳染病에 對한 대책

지난 11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부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강당에서는 인간과 동물에서 공통되는 전염병의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회장 권이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원장 허정)이 주최하고 한국 수의 보건학회 협찬으로 개최되었다.

축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축산물에서 항생제 검출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축산물의 식품 위생문제는 앞으로 크게 사회문제로 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다.

이러한때 개최된 이번의 세미나는 시기 적절하고 보건행정을 하는 분이나(이날보사부 보건국장, 모자 보건국장등 다수 참석) 이 업계에 종사하는 학계, 업계에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의 깊은 행사 이었다고 하겠다.

이날 주요 토의된 질병을 보면

1. 살모넬라 Group-D로서 사람의 Salmonellosis의 원인이 되고 있는 추백리문제를
2. 유방염에 걸린 소에서 착유된 우유를 통한 포도상구균 또는 연쇄상구균증
3. 소의 배설물 우유를 통한 결핵



- 4. 광견병
- 5. 일본 뇌염(돼지)
- 6.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등) 수입량의 급증에 따른 제문제 등이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할 살모넬라에 대하여 이날 토의된것을 간략히 소개코저 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카톨릭의대 정희영 교수나 건대 축산대의 이원창교수 외에도 토의자인 보건연구원 김경호 병독부장 수의대 전운성 교수등도 살모넬라에 대하여 많은 비중을 두었다.

현재와 같이 추백리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형편에서는 양계업자의 직접적인 피해도 크려니와 앞으로 날계란을 식용으로 사용하는것 조차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어 계란의 수요적감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추백리 진단액의 민간제조허가를 승인하여 이번 기회에 미국등 선진국과 같이 추백리가 퇴치 되기를 바란다.

각도별 추백리 분포 현황(7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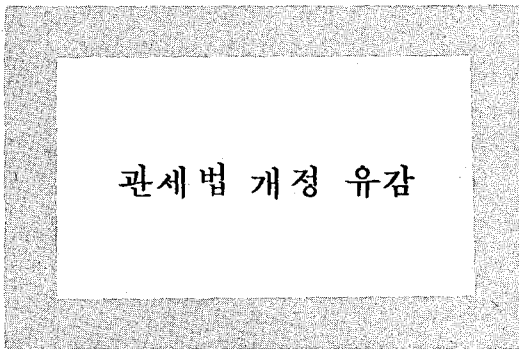
도별	년도	1974	1975	1976	계(%)
서울특별시		20	3	97	120(0.62)
경기		420	520	217	1,157(5.99)
강원		166	601	1,155	1,922(9.95)
충북		31	71	159	261(1.35)
충남		2,988	1,527	904	5,419(28.07)
전북		1,607	355	483	2,445(12.68)
전남		250	454	341	1,045(5.41)
경북		3,124	1,530	1,510	6,164(31.98)
경남		42	323	123	488(2.53)
제주		—	138	144	282(1.46)
계		8,648	5,522	5,133	19,303(100%)

우리는 이번기회에 양질의 축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당국에 제의하고자 한다.

1. 양축가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주시고
2.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79년부터 축산진흥회에 축산물 및 사료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환영하며, 특히 사료검사 업무에는 사료의 영양성분 외에 사료를 통한 세균및 독성에 대한 검사 부서도 신설하여 주시고
3.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의 철저한 검사보다는,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뒷받침을 위하여 현재 안양 가축위생연구소나 국립보건원 규모의 연구소를 신설하여 현 안양연구소는 기초 연구를 하고 일반 검진 검색 기술지도등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겠다.

축산물의 수요가 연간 30~40%가 증가함에도 방역기구는 10년전에 비하여 별로 발전이 안된것도 오늘날 질병으로 양축농가가 피해를 입게되는 이유의 하나가 되겠다.

축산물을 통한 질병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축산진흥회에서 담당하여 주었으면 한다. 이것이 곧 축산진흥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관세법 개정 유감

이번 제100회 정기국회에서는 최근의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관세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였다.

우리 업계에서 특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제는 우리도 양계산업을 기계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력 관리뿐 아니라, 방역 및 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속한 양계산업의 기계화가 필요하고 이번 브라질 및 미국을 시찰하고 돌아온 세계 가금학회 참가단의 귀국 제1성도 기계화에 대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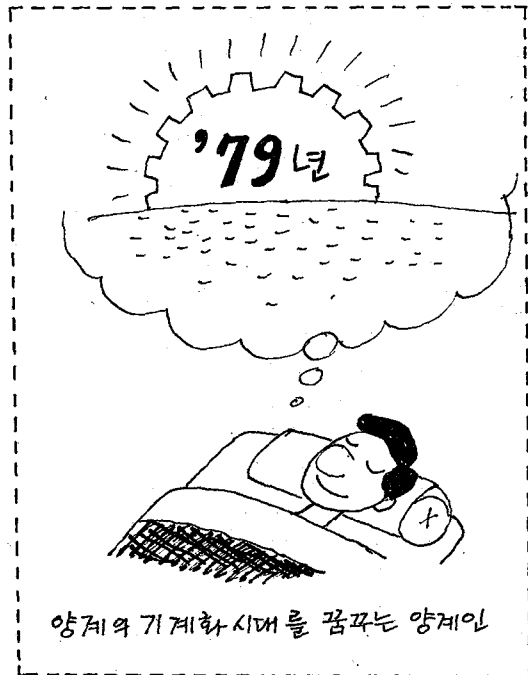
양계협회도 기계화에 대하여는 금년에 전국 순회 강수회를 실시하였고(미국사료곡물협회후원) 최근 몇개의 대기업 종계

장에서는 부화기를 비롯한 계사설비가 수입되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많은 종계장에서 기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결과를 주시하였는데 결과는 큰 실망을 주었고, 양계산업 발전을 또 한해 미루는 결과가 되고말았다.

양계산업의 기계화는 너무도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이를 위해 외화대부나 리스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등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BTN부호 84.52에 해당하는 가금사육용 기구및 부화기에 대한 20%의 높은 관세율 때문에 기계화가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 아직 양계기계 장비 제조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에 없는 현실을 관계당국에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여 79년에는 시정되어 양계산업이 건전하게 발전되어 부족한 육류생산의 일익을 담당하여야 되겠다.



양계의 기계화 시대를 꿈꾸는 양계인

축산물 수요의 변화

이제 축산물이 부식에서 주식으로 그 위치가 변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중에서 육류의 수요변화가 양계인을 긴장시키고 있다.

육류소비구조의 변화 (단위: \$)

구 분	GNP	우육	돈육	계육	계
'62	86\$	24	54	22	100
67	140	25	56	19	100
72	293	22	49	29	100
77	864	27	48	25	100
일 본		17.5	47.6	34.9	100
미 국		44.7	26.8	28.5	100
이스라엘		14.1	3.4	82.5	100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67년부터 닭고기의 수요는 급증하였으나 73년 이후 종계수입 중지로 생산수수가 수요에 따르지 못했고 쇠고기의 수입으로 전체 육류중 닭고기의 비율은 25%로 내려가므로서 닭고기를 가장 적게 먹는 나라로 전락되었다. 값비싼 쇠고기를 많이 먹는것도 좋으나, 일본도 닭고기의 비율이 35%에까지 이르고 있는점을 볼때 현재로서는 양계산물의

생산조절보다는 소비확대와 타육류 대체가 시급하다 하겠다.

72년도 29%에까지 달했던 닭고기가 25%까지 시장이 잠식 당한것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기에 앞서 양계인 전체가 노력하여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아야 되겠다.

닭고기 소비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11월 호에 KIST 이유방 박사가 자세히 기술하였기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양계진흥계획을 보면 앞으로 81년도까지도 양계산물의 소비비율이 25%이하로 되고 있음은 양계인을 슬프게 하는것 중의 하나이다.



년도별 닭고기의 전체육류에 대한 구성비율

년도	77	78	79	80	81	86	91
닭고기비율	24.7	23.5	23.9	24	24.3	28	28.6